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애착, 또래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lf-esteem,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on University Freshmen' Sexual Attitude

김윤정, 권수진, 권혜진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Yoon Jung Kim(yoonjung@cau.ac.kr), Soo Jin Kwon(soojinyk@gmail.com),
Hae Jin Kwon(kwonhj@ca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일개 대학교 신입생 428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쾌락적 성은 성별과 성경험, 부애착, 불안/양가 애착, 부도덕적 성관념은 성별, 성경험, 자아존중감, 안전애착, 성책임감은 성별, 안전애착, 도구적 성은 성별, 성경험, 모애착, 안전애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방화되어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 향상과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성교육 및 성상담 방법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대학신입생 | 성태도 | 자아존중감 | 부모애착 | 또래애착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exual attitude of freshmen in university. Among various possible factors, this study focuses the influence of self-esteem, parent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on university freshmen' sexual attitude. The participants were 428 freshmen in university. For data analysis, SPSS/WIN 20.0 program was used to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voluptuous sex was explained by sex, sex experience, father attachment, and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immoral sexual idea was explained by sex, sex experience, self-esteem, and secure attachment, sexual responsibility was explained by sex and secure attachment, instrumental sex was explained by sex, sex experience, mother attachment, and secure attach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be useful in understanding the sex attitude of university freshmen.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self-esteem,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raise the right sex attitude of university freshmen.

■ keyword : | University Freshmen | Sexual Attitude | Self-esteem | Parent Attachment | Peer Attachmen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건강은 성과 성적관계에서 긍정적이고 상대방을 존중함과 동시에 즐겁고 안전한 성경험, 강압, 차별, 폭력이 없는 성을 의미하며,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으로 정의한다[1].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환경은 핵가족의 출현, 친족체계의 붕괴, 의학 및 산업의 발달로 성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와 지식이 범람하고, 이로 인하여 건강하지 못한 성이 상품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2].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태도가 형성되기도 전에 성에 대한 그릇된 호기심만 높아져 성가치관의 혼란과 성도덕 문란 등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청소년의 성폭력, 임신, 성매매 등의 성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까지 낮아지면서 청소년의 성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3-5].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로 그 과정에서 불안, 고독, 긴장, 고민 등의 특징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신체적으로는 성적인 잠재기에서 벗어나 이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과 동경심이 생기고, 성충동으로 인한 성문제들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6][7]. 그런데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시기에 음란매체 등을 통해 과장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주어 성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주고 불건전한 성태도를 형성한다는 점[8]에서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사춘기에 형성된 성태도는 한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결혼 전 성관념 및 결혼 후 성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기의 인격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인 성태도 형성은 중요한 요소이다[9][10].

결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성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 지식 및 행태 그리고 자아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11]. 높은 자아존중감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외부의 평가나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긍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한다[12][13].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과 올바른 판단능력을 길러줌으로써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한다[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성에 대한 태도나 행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2].

애착은 타인과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이는 초기 애착경험이 내재화되어 청소년기 전반적인 가치감과 자신의 능력 및 행동에 대한 평가, 정서적 안정감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4].

최근에는 청소년 위험행동 및 부적응행동 관련 연구 중 가정환경 변인과 또래관련 변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측면인 부모-자녀 애착관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15][16].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영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되며, 나이가 들어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이 줄어들더라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강조된다. 그러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빈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부모는 중요한 대상이며, 부모가 자신을 항상 지켜준다는 확신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또한 발달단계상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이외에 또래와의 관계가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학교나 밖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친구들이 감정적인 지지와 애착 대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10][17]들을 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된다. 즉 청소년기의 애착행동은 부모에서 친구로 확대된다[18]. 친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며,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성태도를 갖는다[19]. 따라서 청소년의 성태도에 있어 부모 및 또래 애착을 고려하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심리적 요인만큼이나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성태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9][10][13][20][21]들도 있지만,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12]들도 있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정의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면서 자아존중감과 인과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애착과 성태도와 관련하여 외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와 맺는 애착관계의 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질이 성범죄와 같은 일탈적 행동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22][23]. 더 나아가 성인의 성태도에도 관계가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만[24][25], 국내에서는 애착과 성태도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성태도는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16][26], 또래 애착과 성태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태도와 관련된 개인, 가족, 사회요인 중 중요한 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인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조사하고,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성건강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성건강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성태도,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파

악한다.

-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시 소재의 일개 대학교의 신입생을 편의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C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승인번호 1041078-201402-HR-016-02).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 목적과 절차, 연구자료 분석의 익명성, 사생활 보장 및 연구참여 중도포기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의 주제가 성과 관련되어 매우 사적이고 민감하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문할 경우 대상자들이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것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성한 후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수거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대상자를 최대한 배려하고자 하였다.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중 490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이었다. 이 중 설문지 응답에 누락이 있는 62부를 제외한 총 428부(탈락률 12.7%)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G 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정 대상자 수 분석에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독립변수 12개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84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

구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27].

4. 연구도구

4.1 성태도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endrick와 Hendrick[28]의 다차원 성태도 척도(Multidimensional Sexual Attitude Scale)를 최인숙[2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이며, 쾌락적 성(15문항), 부도덕적 성관념(4문항), 성 책임감(3문항), 도구적 성(3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된 Likert 척도 방식이다. 쾌락적 성은 기본적으로 성관계가 좋고, 어쩌다 만난 사람과의 우발적 성관계 뿐 아니라 성관계를 단순히 주고받을 수 있는 쾌락적 성 추구를 보이는 태도로 최저 15점에서 최고 75점이다. 부도덕적 성관념은 배우자가 모르는 한 불륜은 해도 괜찮을 뿐 아니라 사회는 매춘을 허용해야 한다는 부도덕성을 띠는 성태도로 최저 4점에서 20점까지 측정된다. 성 책임감은 피임에 대해 남성(여성)과 함께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피임은 성행위의 책임 중 일부분으로 책임감에 대한 설명이며, 도구적 성은 인간의 본능적인 성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신체적 해소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로 불륜 뿐 아니라 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묻는 태도이다. 성 책임감과 도구적 성은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측정된다. 최인숙[29]의 연구에서 성태도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 는 쾌락적 성 .91, 부도덕적 성관념 .80, 성 책임감 .80, 도구적 성 .65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쾌락적 성 .93, 부도덕적 성관념 .75, 성 책임감 .81, 도구적 성 .70으로 나타났다.

4.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30]가 개발하고 전병재[3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인 문항 5개와 부정적인 5개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도구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Likert 척도 방식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 α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4.3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4]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에서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3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부모애착척도(IPA)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신뢰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이다. 한국형 부모애착척도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4점 척도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개발당시와 같이 5점 척도('항상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측정하였다. 총점은 본래 신뢰와 의사소통 문항들 값에서 소외와 역채점 문항들 값을 빼는 방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32]의 연구에서와 같이 역채점 문항에 대해 역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총점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모애착 Cronbach α =.87, 부애착 .89였고,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32]에서는 모애착 .93, 부애착 .94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93, 부애착 .95로 나타났다.

4.4 또래애착

본 연구에서는 Wilkinson[33]이 개발한 청소년 또래 애착 척도(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AFAS)를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3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안전애착 13문항, 불안/양가 애착 8문항, 회피 애착 4문항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매우 동의한다' 5점으로 Likert 척도 방식이다. 안전애착은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불안/양가 애착은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 회피 애착은 최저 4점에서 최고 20점까지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애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전애착이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안전애착 Cronbach α =.91, 불안/양가 애착 .81, 회피

애착 .79였고,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34]에서는 안전애착 .89, 불안/양가 애착 .78, 회피애착 .7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애착 .90, 불안/양가 애착 .79, 회피애착 .69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성태도와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특성별 성태도의 차이는 t 검정과 ANOVA, 사후검정을 적용하였고,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71명(63.3%), 여자 157명(36.7%)이었으며, 연령은 17-19세 362명(84.6%), 20-23세 66명(15.4%)이었다. 종교는 무교 261명(61%), 기독교 99명(23.1%), 천주교 41명(9.6%), 불교 27명(6.3%)이었고, 가족형태는 양부모가정 389명(90.9%), 한부모 가정 36명(8.4%), 조손가정 3명(0.7%)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이성교제 경험은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은 243명(56.8%),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없음'이 128명(29.9%),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음'이 36명(8.4%),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이 21명(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경험은 없는 경우가 404명(94.4%), 있는 경우가 24명(5.6%)이었다.

2. 대상자의 성태도,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대한 서술적 통계는 [표 2]와 같다. 성태도의 하위요인 중 쾌락적 성은 평균 35.37점(±1.06), 부도덕적

성관념은 평균 5.02점(±1.90), 성 책임감은 평균 12.45점(±2.37), 도구적 성은 평균 4.82점(±1.82)으로 측정되었다.

즉 쾌락적 성은 최고 75점 기준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부도덕적 성관념은 최고 20점 기준으로 낮은 수준, 성 책임감은 최고 15점 기준으로 높은 수준, 도구적 성은 최고 15점 기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37.57점(±5.07)이었으며, 부애착 93.10점(±17.93), 모애착 97.01점(±14.36)이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애착은 안전애착 53.40점(±7.07), 불안/양가 애착 16.47점(±5.11), 회피애착 8.85점(±3.30)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28)

변수		n	%
성별	남자	271	63.3
	여자	157	36.7
연령	17-19	362	84.6
	20-23	66	15.4
종교	기독교	99	23.1
	천주교	41	9.6
	불교	27	6.3
	무교	261	61.0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389	90.9
	한부모가정	36	8.4
	조손가정	3	0.7
이성교제경험	과거에만 있었음	243	56.8
	현재에만 있음	21	4.9
	과거, 현재 있음	36	8.4
	한번도 없음	128	29.9
성경험	예	24	5.6
	아니오	404	94.4

표 2. 대상자의 성태도,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정도

변수		평균 ± 표준편차
성태도	쾌락적성	35.37 ± 1.06
	부도덕적 성관념	5.02 ± 1.90
	성 책임감	12.45 ± 2.37
	도구적 성	4.82 ± 1.82
자아존중감		37.57 ± 5.07
부모애착	부애착	93.10 ± 17.93
	모애착	97.01 ± 14.36
또래애착	안전애착	53.48 ± 7.07
	불안/양가 애착	16.47 ± 5.11
	회피애착	8.85 ± 3.30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변수	항목	쾌락적 성		부도덕적 성관념		성책임감		도구적 성	
		M±SD	t or F (p)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자	39.32±10.35	10.98	5.43±2.22	7.50	12.12±2.37	-3.82	5.38±1.91	10.36
	여자	28.55±8.70	(.001)	4.31±0.79	(.001)	13.01±2.28	(.001)	3.85±1.13	(.001)
연령	17-19	34.42±10.47	-4.26	4.91±1.59	-1.90	12.44±2.35	-0.14	4.69±1.72	-3.42
	20-23	40.61±12.75	(.001)	5.64±3.06	(.062)	12.48±2.51	(.886)	5.52±2.18	(.001)
종교	기독교	33.04±10.39	3.35	4.69±1.27	1.56	12.31±2.41	2.59	4.43±1.57	2.91
	천주교	32.80±11.54	(.019)	4.95±1.38	(.198)	13.41±1.60	(.053)	4.59±1.61	(.034)
	불교	34.88±8.38		4.76±1.17		12.56±2.40		4.52±1.53	
	무교	36.57±11.13		5.11±2.00		12.37±2.37		5.00±1.91	
가족형태	양부모 가정	35.22±11.17	1.23	5.01±1.94	0.10	12.46±2.39	0.07	4.81±1.83	0.23
	한부모 가정	36.78±9.78	(.287)	5.08±1.65	(.909)	12.56±1.95	(.935)	4.94±1.76	(.793)
	조손 가정	46.00±5.66		4.50±0.71		12.00±0.00		5.50±2.12	
이성교제경험	과거에만있었음	35.02±10.77	1.55	4.86±1.38	3.02	12.56±2.24	1.22	4.82±1.72	2.83
	현재에만 있음 ^a	30.89±9.17	(.200)	4.47±1.43	(.030)	12.26±2.71	(.304)	3.95±1.47	(.039)
	과거, 현재 있음	35.22±10.83		4.78±2.09	a ^b	12.89±2.12		4.34±2.02	a ^b
	한번도 없음 ^b	36.44±11.37		5.38±2.39		12.17±2.59		5.04±1.92	
성경험	예	46.25±13.17	5.10	6.46±3.56	2.08	12.46±2.11	0.03	6.38±2.43	4.40
	아니오	34.73±10.60	(.001)	4.93±1.73	(.048)	12.45±2.39	(.980)	4.73±1.74	(.001)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쾌락적 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10.98, p<.001), 20-23세가 17-19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4.26 p<.001),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5.10, p<.001), 종교(F=3.35, 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도덕적 성관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7.50, p<.001),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2.08, p=.048), 이성교제경험(F=3.02, p=.030)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책임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82, p<.001),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도구적 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t=10.36, p<.001), 20-23세가 17-19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t=-3.42, p=.001), 성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4.40, p<.001). 그리고 종교(F=2.91, p=.034)와 이성교제경험(F=2.83,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이성교제경험이 ‘현재에만 있음’ 그룹보다 ‘한번도 없음’ 그룹에서 부도덕적 성관념과 도구적 성의 점수가 높았다.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쾌락적 성은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 성별, 연령, 종교, 성경험, 부도덕적 성관념은 성별, 이성교제경험, 성경험, 성책임감은 성별, 도구적 성은 성별, 연령, 종교, 성경험, 이성교제경험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애착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 검정을 실시한 결과 Durbin-Watson 값이 1.94~2.02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고, 모형의 공차한계(Tolerance)는 .83~.98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가 1.03~1.20로 10보다 크지 않아 본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태도 중 쾌락적 성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45.48, p<.001), 쾌락적 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43, t=-10.30, p<.001), 성경험(β=-.16, t=-3.93, p<.001), 부애착(β=-.16, t=-3.89, p<.001), 불안/양가 애착(β=.13, t=3.04, p=.003)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9.5%이었다.

표 4.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	t	p	tolerance	VIF	R ²	Adjusted R ²	F	p	Durbin-Watson
쾌락적성	성별	-9.67	.94	-.43	-10.30	<.001	.97	1.03	.302	.295	45.48	<.001	1.97
	성경험	-7.72	1.96	-.16	-3.93	<.001	.97	1.03					
	부애착	-.10	.03	-.16	-3.89	<.001	.95	1.06					
	불안/양가 애착	.27	.09	.13	3.04	.003	.94	1.06					
부도덕적 성관념	성별	-.24	.04	-.25	-5.39	<.001	.94	1.06	.142	.134	17.47	<.001	1.94
	성경험	-.23	.09	-.11	-2.46	.014	.87	1.05					
	자아존중감	-.01	.00	-.16	-3.30	.001	.95	1.15					
	안전애착	-.01	.00	-.12	-2.44	.015	.83	1.20					
성책임감	성별	.25	.08	.16	3.26	.001	.98	1.03	.063	.059	14.41	<.001	2.02
	안전애착	.02	.01	.18	3.71	<.001	.98	1.03					
도구적성	성별	-.44	.06	-.35	-7.97	<.001	.94	1.06	.226	.218	30.65	<.001	1.95
	성경험	-.37	.12	-.14	-3.15	.002	.95	1.06					
	모애착	-.01	.00	-.15	-3.22	.001	.88	1.14					
	안전애착	-.01	.00	-.12	-2.53	.012	.85	1.18					

*Dummy coded(성별:남자=0, 성경험:예=0)

부도덕적 성관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7.47, $p<.001$),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25$, $t=-5.39$, $p<.001$), 성경험($\beta=-.11$, $t=-2.46$, $p=.014$), 자아존중감($\beta=-.16$, $t=-3.30$, $p=.001$), 안전애착($\beta=-.12$, $t=-2.44$, $p=.015$)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3.4%이었다. 성책임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14.41, $p<.001$), 성책임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16$, $t=3.26$, $p=.001$), 안전애착($\beta=.18$, $t=3.71$, $p<.001$)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9%이었다. 도구적 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30.65, $p<.001$),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beta=-.35$, $t=-7.97$, $p<.001$), 성경험($\beta=-.14$, $t=-3.15$, $p=.002$), 모애착($\beta=-.15$, $t=-3.22$, $p=.001$), 안전애착($\beta=-.12$, $t=-2.53$, $p=.012$)으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21.8%이었다[표 4].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와 부모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성숙이 성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유·아동시기와는 다르게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상 중요한 영향요인인 또래와 부모애착이 성태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입생의 대부분은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도 대부분 성경험이 없다는 결과[12]와 일치하며, 남자대학생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52.8%이었으며 [8], 남녀 대학생들은 41.6%가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 [35]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신입생들까지는 성경험이 거의 없다가 대학시절동안 성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점차 개방화되는 대학시절에 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을 위한 성교육이 중요함을 시사 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 성태도 중 쾌락적 성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부도덕적 성관념은 낮은 수준, 성 책임감은 높은 수준, 도구적 성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입생들은 성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며, 성에 대한 쾌락적 태도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인다고 한 결과[9][12][36]와 유사하지만, 성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달라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성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에서 의미하는 성태도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8]. 또한 대학생들의 성태도 중 쾌락 유희적 성은 보통이상[8][35]으로 신입생들보다 더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령에 따라 쾌락적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신입생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다 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고 쾌락적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

어진다. 따라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성교육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성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5.1점으로 본 연구도구와는 다르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64.3점[10]보다 높아, 대학 신입생들의 자아존중감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대학신입생들은 전반적으로 부모 및 또래 애착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중학생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7][38]에서도 유사하였다. 신입생들은 대학 입학에 앞둔 단계에 있는 긍정적 상황으로 인해 자아존중감과 애착 모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쾌락적 성은 성별, 연령, 성격형, 종교, 부모덕적 성관념은 성별, 성격형, 이성교제경험, 성책임감은 성별, 도구적 성은 성별, 연령, 성격형, 종교, 이성교제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쾌락적 성과 부모덕적 성관념, 도구적 성에 대한 태도가 높았으며, 여학생은 성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쾌락적 성과 도구적 성에 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성격형이 있을 경우 쾌락적 성과 부모덕적 성관념, 도구적 성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사후검정 결과,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부모덕적 성관념과 도구적 성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주연 등[10]의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종교, 이성교제기간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성태도 중 허용성은 성별, 연령, 종교, 이성교제기간, 책임성은 성별, 연령, 도구성은 성별, 연령, 종교, 교류성은 성별, 연령, 이성교제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청소년들의 성태도는 성별, 전공, 학년, 학업성적, 가정형편, 이성친구 유무, 성격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7][12]. 대학생들은 성별, 연령, 전공, 학년, 종교, 흡연, 음주, 거주형태, 가족 소득, 주보호자, 성격형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8][13][35][36]. 이와 같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자나 시기, 도구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대부분 남성 또는 연령이 많을수록 개방적

성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성교제나 성격형이 있는 경우가 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이성교제 경험은 이성에 대한 거부감과 어색함, 궁금증을 감소시켜 개방적이거나 긍정적인 성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학생이 성에 대한 쾌락이나 유희성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개방적이며 성을 인간의 본능적인 성으로 해석함을 알 수 있으므로, 남학생에게 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한 결과, 쾌락적 성은 성별과 성격형, 부애착, 불안/양가 애착, 부모덕적 성관념은 성별, 성격형, 자아존중감, 안전애착, 성책임감은 성별, 안전애착, 도구적 성은 성별, 성격형, 모애착, 안전애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이나 성격형에 따라 성태도는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부애착은 쾌락적 성, 자아존중감은 부모덕적 성관념, 모애착은 도구적 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래애착 중 불안/양가 애착만이 쾌락적 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안전애착이 부모덕적 성관념과 성책임감, 도구적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이 대학 신입생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성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9][10][13][20].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놀이적, 우정적, 계산적, 실용적 사랑을 할 가능성이 적고, 불안/양가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소유적, 의존적, 우정적, 헌신적 사랑이 모두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39]한 것과 유사하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성태도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12][40][41]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정서적인 안정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의 애착관계,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이성교제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성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호교환을 통해 올바른 성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형

성된 내적표상으로 인해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형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건강한 개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2].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신의 심리적 성숙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성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와 가정에서 상호작용하는 시간보다 학교나 밖에서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친구들이 감정적인 지지와 애착 대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17]들을 하면서 친구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된다.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편안하게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성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19].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부모애착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이 성태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입생들은 대학생들보다 성경험이 아직 없으며, 덜 개방적인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성태도는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애착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성별이나 성경험이 성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따라서 개방화되어가는 신입생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성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신입생 대상의 성별과 성경험에 따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올바른 성태도를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부모와 또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에 대한 가치관을 성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기의 대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이나, 대학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나 사회적인 장치에 대한 활성화와 개발이 건전한 성문화발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신입생의 성태도를 조사하고,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성건강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쾌락적 성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부도덕적 성관념은 낮은 수준, 성 책임감은 높은 수준, 도구적 성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 애착은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둘째, 쾌락적 성은 성별, 연령, 성경험, 종교, 부도덕적 성관념은 성별, 성경험, 이성교제경험, 성책임감은 성별, 도구적 성은 성별, 연령, 성경험, 종교, 이성교제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쾌락적 성은 성별과 성경험, 부애착, 불안/양가 애착, 부도덕적 성관념은 성별, 성경험, 자아존중감, 안전애착, 성책임감은 성별, 안전애착, 도구적 성은 성별, 성경험, 모애착, 안전애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방화되어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행위를 함양시키는 바람직한 성교육, 상담 방법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모와 또래 애착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부모와 친구요인을 함께 고려한 다각적 측면의 중재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성태도를 파악한 연구이며, 청소년기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개인, 가족, 또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애착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대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성 책임감과 부도덕적 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성경험이 없었으므로, 성경험이 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 등 개인적인 특

성을 적극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들의 올바른 성태도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문제는 결코 청소년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족, 친구, 학교의 도움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 본 연구를 참고하여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 애착, 성태도와 관련된 신입생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who.int/topics/sexual_health/en
- [2] 성미혜,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5권, 제1호, pp.73-80, 2009.
- [3] 신경립, 박효정, 배경희, 차지영, “한국 대학생의 성행동, 생식건강 관련 건강행위, 성경험 특성 실태”, 성인간호학회지, 제22권, 제6호, pp.624-633, 2010.
- [4] L. B. Finer and M. R. Zolna, “Unintended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incidence and disparities,” *Contraception*, Vol.84, pp.478-485, 2011.
- [5] J. Owen, G. K. Rhoades, S. M. Stanley, and F. Fincham, “Hooking up’ among college students: demographic and psychosocial correlat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39, pp.653-663, 2010.
- [6] 김유정,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화보, 제24권, 제6호, pp.45-84, 2010.
- [7] 황명희송, 김종민, 문인옥,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이 성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제9권, 제2호, pp.1-13, 2008.
- [8] 김상희, 윤우철, “남자대학생의 성의식과 성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2호, pp.248-257, 2012.
- [9] 신근화, 강명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의식의 매개효과”, 인문과학연구, 제37권, pp.489-518, 2013.
- [10] 이주연, 하상희, 정혜정, “대학생의 개인 심리적 특성변인과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149-172, 2005.
- [11] 박신애, 왕명자, 차남현, “청소년의 신체접촉 양상에 대한 인식과 경험실태, 성지식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42-252, 2006.
- [12] 배경의, 강양희,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산자녀건강학회지, 제10권, 제1호, pp.36-47, 2009.
- [13] 김홍규, 허은주, “대학생의 심리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와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403-422, 2003.
- [14] G. C. Armsden and M. T. Greenberg,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16, pp.427-454, 1987.
- [15] 김재희, 주은선, “부적응 청소년 집단의 애착 유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3권, 제3호, pp.107-125, 2001.
- [16] 송호창, 오윤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비행”,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51-173, 2006.
- [17] S. M. Nelis and G. Rae,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Vol.32, No.2, pp.443-447, 2009.
- [18] 주은지,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6호, pp.125-142, 2010.
- [19] 김연석, *친구와의 성 의사소통 중요성: 성 의사소통, 성 지식, 성태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0] 안현진, 박경, “미혼남녀의 성의식과 자아존중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제3권, 제1호, pp.47-67, 2003.
- [21]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

- 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제12권, 제1호, pp.138-148, 2001.
- [22] E. Baker, A. Beech, and M. Tyson, “Attachment disorganization and its relevance to sexual offending,”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21, No.3, pp.221-231, 2006.
- [23] K. B. Starzyk and W. L. Marshall, “Childhood family and personal risk factors for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8, pp.93-105, 2003.
- [24] C. Hazan and D. Zeifman,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5, pp.151-178, 1994.
- [25] J. A. Freeney and B. Raphael, “Adult attachment and sexuality: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risk behaviors for HIV infectio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26, pp.399-407, 1992.
- [26] 윤명숙, 이재경,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 우울, 학교애착,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지*, 제30권, 제1호, pp.272-300, 2008.
- [27]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nd A.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28] S. S. Hendrick and C. Hendrick, “Multidimensional Sexual Attitude Scale,” *Journal of Sex Research*, Vol.23, No.4, pp.502-526, 1987.
- [29] 최인숙,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30]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31]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pp.109-129, 1974.
- [32] 유성경, 박승리, 황매향,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모애착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제9권, 제1호, pp.21-39, 2010.
- [33] R. B. Wilkinson,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the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Vol.37, pp.1270-1279, 2008.
- [34]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한국판 청소년또래애착도 타당화 연구-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73-296, 2012.
- [35] 김은만, 유수정, 송미령, “대학생의 음란물 노출력과 성태도 및 성격험간의 상관성 분석”, *기본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pp.18-26, 2013.
- [36] 주영희, 정은숙, 심문숙, “대학생들의 결혼 및 자녀 가치관과 성태도 관련성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9호, pp.267-278, 2013.
- [37] 이주리, “부모 및 친구애착과 비행 간 관계: 중단 연구”, *놀이치료연구*, 제15권, 제2호, pp.21-30, 2011.
- [38] 고영남,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 동료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pp.246-269, 2011.
- [39] N. L. Collins and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No.4, pp.644-663, 1990.
- [40] 김미옥,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3876-3886, 2013.
- [41] 손병덕, “청소년의 성 가치관과 인구사회학적 변인, 청소년-부모 애착 그리고 신앙생활의 상관관계”,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pp.301-321, 2009.
- [42]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27권, 제1호, pp.1-15, 2006.

저 자 소 개

김 윤 정(Yoon Jung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과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학

권 수 진(Soo Jin Kwon)

정회원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13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과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간호학

권 혜 진(Hae Jin Kwon)

정회원



- 198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정신간호학 박사)
- 1990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정신간호학